

# “동복댐 돌려달라”...화순군민들 관리권 이양 촉구

### 50년째 개발행위 규제 묶여 호우 피해에도 재산권 행사 못해 화순군의회, '홍수조절 기능 삭제 관리규정' 개정 반대 서명운동

화순군 주민들이 광주시 상수원인 동복댐의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고 나섰다.

댐 건설 이후 50년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는 동복댐 주변지역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는데도 광주시가 홍수조절 기능을 삭제하는 쪽으로 관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 주관으로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상수도 동복댐 관리규정' 개정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지난 1971년 처음 건설된 화순 동복댐은 50년째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이용되면서 화순군 이서면·백야면 일대 주민들이 집단이주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행위 규제에 묶여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8월 집

중호우 당시 홍수조절 실패로 화순군 동복면을 비롯한 4개 면이 극심한 침수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식수공급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광주시를 항의방문해 상위법에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동복댐 관리규정'을 지적하고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대책 등 5개 항목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관리규정 제2조(댐의 용도)에서 '홍수조절'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민들은 광주시가 상생의 길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화순군의회도 '광주시는 피해보상과 재발 방지



화순군의회가 동복댐 관리권 이양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화순군의회 제공>

대책을 강구하고 동복댐 관리권을 화순군에 이양하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화순군의회 관계자는 "50년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온 주민들이 침수피해까지 입었는데도

광주시는 재발 방지대책 등에 소홀히 하고 있다"며 "관리규정에서 홍수조절 용도를 삭제하는 것은 침수피해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 이웃돕기 성금 4000만원 기탁 재경담양군향우회, 담양군에



담양군은 재경담양군향우회가 이웃돕기 성금으로 4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향우들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당초 목표였던 3000만원을 훌쩍 넘겨 마련했다.

이성백 재경담양군향우회장은 "향우들의 고향을 향한 애정심이 가슴이 벅차올랐다"며 "성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민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베란다에서 공연 보며 힐링 장성군, '기술'과 '배려'로 산골마을 물 부족 해결

### 담양읍 백동LH행복아파트 '베란다콘서트' 주민 큰 호응

담양읍 담양읍이 지난 20일 백동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에서 '베란다콘서트'를 열었다.

담양읍이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이색 공연이다.

이번 행사는 아파트 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며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공연으로 클래식앙상블, 퓨전국악, 대중가요 등 청소년과 중년, 노년 등 가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곡들을 선보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담양읍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주공1단지아파트 정문 앞에서 두번째 베란다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정군태 담양읍장은 "이번 공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주민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힐링하고 희망을 찾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 북일면 용연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취수량 확보...1km 농업용수 공급관 설치

장성군이 상습적인 가뭄에 시달리는 산골 마을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북일면 성덕리 고지대 농경지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통해 취수량을 확보한 용연저수지 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용연저수지에서 성덕리 농경지까지 약 1km 구간에 농업용수 공급관을 설치했다.

저지대의 물을 고지대까지 올려보낼 설비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보다 2배가량 힘이 센 장치로 채택했다.

취수시설 설치 공사로 인한 저수지 물 방류가 필요 없도록 수면 위에서 물을 끌어 올리는 설비를 지상에 설치했다.



장성군이 북일면 용연저수지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통해 성덕리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이러한 기술과 설비보다는 용연저수지 인근 마을 주민의 배려가 성덕리 물 부족 해결에 가장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 농업인이 물 부족 없이 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수해 피해 함평엑스포공원 전남도, 복구비 10억원 지원

막대한 수해를 입은 함평엑스포공원이 전남도의 예산 지원으로 피해 복구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0일 이상의 함평군수에게 도비 10억원을 함평엑스포공원 복구에 특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정에 따라 함평군은 피해 복구비(군비 27억원)의 약 40%에 달하는 도비를 추가 확보했다.

이번 지원은 이 군수가 지난 호우피해 관련 지역 복구계획을 설명하며 엑스포공원 복구를 위한 전남도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예정돼 있던 국비 지원이 모두 군비로 변경된 데 따른 재정확보 어려움을 호소하자 김 지사가 지원을 약속했다.

함평군은 이번 도비 지원에다가 기존에 확보한 국비 150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등 복구사업비 271억원을 더해 내년까지 침수피해를 입은 공원 부대시설 전반을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문화유물전시관은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 1m 가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내년 초 신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여의치 않은 재정 여건이지만 함평엑스포공원은 지역의 핵심시설이고 전남도 입장에서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여서 지원을 결정했다"며 "도비 지원이 단순 피해복구를 넘어 함평엑스포공원 명품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비축제 개최 장소로 유명한 함평엑스포공원은 지난 집중호우로 공원 내 부대시설이 대부분 침수되면서 15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은 민간시설 복구에 쓰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공원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며 "도비 지원으로 피해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아동친화도시' 화순군 아동·청소년 의회 구성

의장단·3개 상임위...아동정책 심의

'아동친화도시' 화순군이 아동 관련 정책을 심의할 아동·청소년의회를 구성했다.

화순군은 최근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14명을 위촉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회 의장에는 이수빈(화순제일중 3년) 의원, 부의장에는 이슬(농주중 3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또 교육문화위원회, 안전복지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

도 선출했다.

아동·청소년의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의회는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 모니터링 사업과 연계해 운영한다.

이수빈 의장은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회의 의견이 아동청소년 정책에 적극 반영돼 꿈이 커가는 아동친화도시 화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화순군은 최근 제2대 화순군 아동·청소년의회 의원 14명을 위촉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화순군 제공>

**NAVER** 백산광화문작명소

T) 02-747-0242 / 02-738-1938  
M) 010-5639-4088 / 010-3785-1935

# 名 作 名 作 名 作

## 광화문父子작명가

한국 최고의 작명가로 KBS TV 9시 뉴스 방영 당시白山 선생

### 성스러운 탄생과 이름

세상은 좋은것도 많고 나쁜것도 많다. 이름도 좋은 이름 많고 나쁜 이름도 많다. 사람은 이름이 좋아야 평생 마음 먹은대로 하는일 마다 잘 되고 대복을 누린다. 나쁜 이름은 매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는일 마다 실패한다.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해도 수포로 돌아간다. 좋은 작명가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다. 끝으로 이름 값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30만원이 기본이요. 많은 성의를 표시 하는 가정이 있고 형편에 따라 조금 저렴 하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은 곧 생명입니다. 저의 부자는 정성으로 대명작의 이름을 작명하여 전국 어디에나 보내드립니다. 나쁜이름과 상호는 새이름 (new name)으로 바꾸시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작명가白山 선생과 아들 서승재 박사 父子가 정성으로 작명한 大名作의 이름으로 평생 마음 먹은대로 大福을 받으세요

작명가白山 작명가 서승재 박사 (백산2세)

외국인과 교포가 많이 찾는白山 선생 (MBC TV 방영)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민 비대면 작명을 환영 합니다.

주소 : 서울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광화문시대빌딩 715호 (서울정부종합청사와 외교부 중간 광화문시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6번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출구